

영월 영춘 맷기: 단종문화제로 알아보는

영월의 역사와 도시 정신

문화인류학과

202413405

왕숙혜

<목차>

I. 서론

- 영월, 역사적 비애와 일상의 온기가 교차하는 공간

II. 본론

- 영월의 지리적 환경과 생업의 변천
- 단종의 죽음과 지역 사회의 부채의식
- 18세기 사회 변동과 단종 신격화의 폭발적 전개
- '영월 정신'의 형성: 극한의 공감과 은유의 민속학
- 단종문화제와 대왕굿
- 쇠퇴한 광산촌에서 창조적 문명으로

III. 결론

- 영월, 아픔을 문명으로 제련해 낸 회복의 도시

참고문헌

I. 서론

1. 영월, 역사적 비애와 일상의 온기가 교차하는 공간

강원도 영월은 수려한 자연경관 이면에 깊고 서늘한 역사의 상흔을 품고 있는 독특한 공간이다. 첩첩산중의 지리적 고립감은 과거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비운의 군왕 단종을 품는 거대한 천연 유배지가 되었고, 근현대에 이르러서는 석탄을 캐내며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지탱한 땀방울의 터전이 되었다. 이처럼 영월의 역사는 국가 권력의 폭력적 투사와 산업 자본의 착취, 그리고 그로 인한 붕괴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지속적인 위기를 겪어왔다. 그러나 영월은 단순히 희생의 공간으로 남지 않았다. 비극적인 왕실 역사와 신성한 민간 신앙, 그리고 광부와 서민들의 치열한 일상은 하나의 공간 속에서 융합되어 영월만의 독자적인 지역 정체성을 형성했다.

본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나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해 계속 고민해 왔다. '영월에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채, 심지어 강원도의 많은 곳을 아직 밟아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나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도시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현재의 객관적인 조건 때문에 아직 직접 영월 땅을 밟고 현지 조사를 하지는 못했다. 이 도시에 대한 나의 모든 인식은 전적으로 학술 논문, 역사 문헌, 향토지, 그리고 인터넷 다큐멘터리 영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활자와 영상으로 구성된 사료들 속에서 나는 차가운 객관적 사실을 뛰어넘는 영월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본 보고서는 영월이 지닌 이러한 다층적 기억들이 어떻게 지역 주민들의 내면에 투영되어 '영월 정신'을 형성했는지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분석한다.

자연지리와 생업의 변천, 특히 덕포 5 일장으로 대변되는 서민들의 삶에서 출발하여, 18 세기라는 특정 시기에 단종 신격화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진 역사적·사회적 기전을 파헤친다. 나아가 단종과 지역 주민 간의 정서적 연대가 어떻게 각종 민속놀이와 제의로 승화되었으며, 이러한 문화적 응집력이 폐광 이후 도시의 존망이 걸린 위기 속에서 영월을 ‘지붕 없는 박물관 고을’이자 ‘올해의 문화도시’로 재탄생시키는 정신적 원동력이 되었는지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자연의 요새와 삶의 터전: 영월의 지리적 환경과 생업의 변천

1.1. 카르스트 지형이 빚어낸 천연의 요새와 단절의 공간

영월의 역사적 숙명과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리적 환경이 지닌 폐쇄성과 중심성을 동시에 파악해야 한다. 강원도 남부에 위치한 영월은 서쪽으로 원주와 제천, 북쪽으로 평창과 정선, 동쪽으로 태백, 남쪽으로 단양 및 영주와 맞닿아 있어 여러 지역을 잇는 지리적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내부 지형은 태백산맥, 소백산맥, 차령산맥이 교차하며 험준한 산악 지대를 형성하여 평지가 극히 드물다. 평창강과 주천강이 만나 서강을 이루고, 유명한 동강과 합류하여 남한강 본류를 형성하는 물줄기는 산세를 더욱 깊게 파고들었다.

특히 영월은 광범위한 석회암 지대(조선누층군)에 자리 잡고 있어 오랜 세월 물에 녹으며 형성된 카르스트 지형이 발달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고씨동굴은 임진왜란 당시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었으며, 한반도 지형은 굽이치는 강물이 대지를 깎아 만든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여준다. 이러한 높고 험준한 산수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군사 요충지로서 기능함과 동시에, 조선 시대에는 외부와 완벽히

단절된 천연의 유배지가 되었다. 영월의 닫힌 지형은 훗날 단종의 비극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가두는 잔혹한 지리적 복선으로 작용했다.

1.2. 지역 공동체의 결속과 생업의 중심, 덕포 5일장

험준한 지형적 제약으로 인해 영월은 대규모 벼농사 대신 옥수수, 감자, 메밀 등의 밭농사와 화전 농업에 의존해 왔다. 교통이 불편한 내륙 산간의 특성상 일상적인 자급자족이 불가능했던 주민들에게, 물자를 교환하고 정보를 나누는 정기 시장은 단순한 상거래의 장을 넘어 산간 공동체의 생존과 결속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거점이었다.

이러한 영월의 생업 문화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공간이 바로 매월 4일과 9일에 열리는 ‘덕포 5일장’이다. 동강 둔치 독길을 따라 길게 늘어서는 이 시장은 현재 ‘영월장돌뱅이연합협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월을 비롯해 평창, 제천 등지를 순회하는 현대판 장돌뱅이들은 지역 경제의 핏줄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노인들이 직접 채취한 산나물이나 봄철 꽃 모종을 나누는 풍경은 산간 공동체 특유의 온기를 보여준다. 최근 이 협동조합은 덕포 5일장에서 야시장을 개장하여 갈치숙젓비빔밥 등 지역 특색을 살린 먹거리를 선보였으며,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돌뱅이 루트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통 시장을 세대 간 문화 전승의 매개체로 진화시키고 있다.

2. 상실의 역사와 트라우마: 단종의 죽음과 지역 사회의 부채의식

단종을 향한 영월의 맹목적인 애정과 신격화 과정을 이해하려면 그 출발점이 된 1457년의 비극적 사건과 그 이면에 숨겨진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해야 한다. 조선의 6대 임금 단종은 숙부 세조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

청령포로 유배되었다.홍수로 인해 관풍헌으로 거처를 옮긴 단종은 결국 그해 10 월 사약을 받고 17 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공식적인 역사 기록과 민간에 전승되는 이야기는 단종의 최후를 묘사하는 데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중앙 조정에서 파견된 금부도사 왕방연이 감히 사약을 내밀지 못하고 주저하자, 단종을 모시던 지방 하급 관리인 공생(貢生) 복덕이가 활시위로 단종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왕을 시해했다는 끔찍한 오명이 지역 관리의 손에 쥐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시신조차 수습되지 못하고 동강에 버려져 영월 호장 엄흥도가 몰래 동을지산(현 장릉)에 암매장해야만 했던 현실은 영월 백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집단적 부채의식과 죄책감을 남겼다. 권력의 횡포 앞에서 무기력하게 어린 군왕의 죽음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벌어진 이 참극을 감정적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다.

3. 18 세기 사회 변동과 단종 신격화의 폭발적 전개

단종 사후 은밀하게 이어지던 동정론이 지역 사회를 지배하는 공식적인 신앙 체계로 폭발적으로 전환된 것은 17 세기 후반에서 18 세기에 이르는 조선 후기의 거대한 사회 변동과 맞물려 있다. 단종이 '태백산 산신령'으로 신격화된 기전은 단순히 억울한 죽음에 대한 연민을 넘어, 당시 영월 민중들이 직면했던 생존의 위기와 지역 사회의 팽창이라는 현실적 필요가 결합된 결과물이다.

3.1. 전염병(여역)의 창궐과 여제(厲祭), 그리고 한(恨)의 치환

17 세기 후반과 18 세기 초반, 조선 전역은 이상 기후와 더불어 끔찍한 전염병(여역)과 대기근에 시달렸다. 영월 역시 질병과 굶주림으로 수많은 촌락이 붕괴되고 유랑민이 급증하는 극도의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 조정에서는 억울하게 죽어

원한을 품은 귀신(여귀)들이 전염병을 일으킨다고 믿고, 이를 달래기 위해 각 지방에 성황신을 주신으로 하는 여제(厲祭)를 지내도록 명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대응 기제는 영월 백성들의 심리 구조 속에서 단종과 강력하게 결합했다. 영월 사람들의 인식 속에 가장 크고 억울한 원한을 품은 존재는 다름 아닌 단종이었다. 국가가 주도하는 기양의례의 흐름 속에서, 주민들은 단종의 강력한 한(恨)이 오히려 역병과 재난으로부터 지역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에너지로 치환될 수 있다고 믿었다. 1698년(숙종 24년) 단종이 정식으로 복위되자, 억눌렸던 민간의 숭배는 합법적 공간을 확보하며 성황 신앙의 형태로 지역 사회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었다.

3.2. 교통로 개설과 촌락의 팽창: 공동체 통합의 구심점

18세기 중후반 영월의 인구 동태와 촌락의 변화는 단종 신앙이 지리적으로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면 단위 구분	18세기 중반~18세기 후반 변화	18세기 후반~19세기 후반 변화
부내면	거의 변화 없음	큰 변화 (마을 급증)
하동면	마을 수 급증	분동 등으로 급증
상동면	일시적 감소	급증
천상면	급감	소폭 증가
북면	거의 변화 없음	큰 변화
서면	변화 없음	급증

남면	급증 후 급감	급증
----	---------	----

표 1: 18~19 세기 영월 지역 각 면의 촌락 수 변화 추이

위 표에서 나타나듯,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후반에 걸쳐 하동면, 상동면 등지에서 마을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조선 후기 상업의 발달과 함께 영월에서 태백산을 넘어 삼척으로 향하는 새로운 물류 및 교통로가 개척된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유동 인구가 늘어나고 이주민과 원주민이 섞인 새로운 촌락들이 속속 형성되면서, 이질적인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줄 새로운 이념적 중심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단종의 혼령이 백마를 타고 태백산으로 향했다는 신화적 서사는 바로 이 교통로를 따라 전파되었다. 영월에서 태백으로 이어지는 길목마다 연하리, 석항리, 상유전리, 어평마을 등지에 단종을 모시는 서낭당이 집중적으로 세워졌다. 낮선 타지인과 토착민들은 '단종대왕'이라는 강력한 지역 수호신을 매개로 영월이라는 하나의 정신적 공동체로 편입될 수 있었던 것이다.

4. '영월 정신'의 형성

단종을 향한 영월 백성들의 연민은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행위에 머물지 않았다. 혹독한 정치적 억압 속에서 공개적으로 슬픔을 표출할 수 없었던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적인 민속놀이와 장례 풍습 속에 단종의 비극을 교묘하게 은유하고 대속(代贖)하는 장치를 심어 놓았다. 이를 통해 영월 주민들은 약자에 대한 공감과 절망에 굴복하지 않는 '영월 정신'을 체화해 나갔다.

4.1. 도깨비놀이와 띠놀이: 저항의 우화와 해학의 승화

'능마을 도깨비놀이'는 장릉 주변 능마을 주민들에 의해 전승되는 독특한 연희다. 단종의 묘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철저히 버려져 있던 240여 년 동안, 묘역 주변을 지키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산속의 도깨비들이었다는 전설을 바탕으로 한다. 나무꾼이 능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도깨비들에게 혼쫓이 났다는 꿈 이야기에서 유래한 이 놀이는,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왕릉을 수호할 수 없었던 백성들의 처절한 자기 고백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초자연적 존재인 '도깨비'로 치환함으로써 군왕을 수호하고자 하는 은밀한 소망을 우화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영월읍 일대에서 연행되는 '띠놀이' 역시 슬픔을 해학으로 승화시킨 사례다. 열두 가지 동물의 털을 쓰고 각 동물의 습성을 흉내 내며 노는 이 놀이는, 겉보기에는 단순한 오락 같지만 그 기저에는 단종에 대한 깊은 애도가 깔려 있다. 주민들은 닭띠(신유년)로 태어나 기구하게 요절한 어린 왕의 운명을 한탄하며, 동물의 털 뒤에 숨어 단종의 비운에 대한 핑계를 찾고 무거운 역사의 부채감을 해소하려 했다.

4.2. 대속적 의례와 공동체의 희생: 말뼉이와 쌍다리 놓기 놀이

영월 특유의 장례 풍습인 '말뼉이'는 공감 능력이 집단적 대속의 의례로 발전한 가장 극적인 형태다. 출상 전날 밤 상여꾼들을 위로하기 위해 유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선소리를 주고받는 이 놀이에서, 주민들은 평범한 이웃의 망자를 위로하는 대신 단종의 일대기를 읊조린다. 억울하게 죽어 최소한의 염습조차 받지 못한 채 거적대기에 말려 버려진 단종을 위해, 마을 사람들은 타인의 장례식을 빌려 군왕을 위한 성대한 국장(인산)을 대행해 주었던 것이다.

추천면의 '쌍다리 놓기 놀이'는 권력에 대한 체념을 자발적인 희생으로 승화시킨

사례다. 단종 복위 이후 강원도 관찰사가 부임할 때마다 반드시 장릉을 참배하는 관례가 생겼다.관리의 행차는 백성들에게 무거운 부역과 수탈을 의미했으나, 주천면 주민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주천강 양쪽에 두 개의 다리를 놓아 관찰사 일행을 맞이했다. 관찰사의 참배야말로 단종의 억울함이 국법으로 씻겨졌음을 증명하는 의식이라 믿었기에, 그들은 외로운 대왕의 혼령을 위로한다는 일념 하나로 기꺼이 경제적·육체적 고역을 짊어졌다.

놀이 명칭	전승 지역	기원 및 담겨진 상징적 의미
침줄다리기	영월읍	침과 짚을 혼합, 단종 영혼 위로 및 마을의 화합과 풍년 기원
능마을 도깨비놀이	영월읍 (장릉)	공식적 제사 이전, 도깨비를 빌려 왕릉을 수호하려던 백성들의 은유
쌍다리 놓기 놀이	주천면	단종 복위 후 장릉 참배 행렬을 위한 백성들의 자발적 노동과 희생
띠놀이	영월읍	닭띠인 단종의 비극적 운명 한탄 및 해학적 승화
말뚝이	영월 전역	타인의 장례식을 빌려 단종의 국장을 치러주는 대속적 상여 놀이

표 2: 단종의 비극과 결합된 영월의 무형문화유산

이러한 민속놀이와 전통을 통해 영월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겪는 변방의 소외감과 척박한 현실의 고단함을 억울하게 죽은 왕의 처지에 깊이 이입했다. 단종이라는 신성한

희생양을 향한 극한의 공감과 애도는 결과적으로 영월이라는 지역 공동체 전체를 단단하게 결속시키는 '영월 정신'의 뼈대가 되었다.

5. 단종문화제와 대왕굿

수백 년간 민간의 은밀한 전승과 제의로 축적되어 온 단종을 향한 신앙은 1967년 시작된 '단종문화제'를 통해 현대적인 지역 축제로 공론화되고 승화되었다. 1990년 제 24 회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정착되어 매년 4월 말 개최되는 이 문화제는 단순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볼거리가 아니라, 영월 주민들의 집단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내부의 결속을 극대화하는 거대한 '해원(解冤)'의 굿판이다.

축제의 가장 핵심적인 의식은 철저한 고증을 통해 장엄하게 거행되는 '조선 시대 국장 재현'과 '단종대왕 제향'이다. 과거 초라하게 버려졌던 군왕을 위해 수많은 영월 군민들이 직접 상여를 메고 의장기를 들며 국장에 참여하는 행위는, 자신들의 조상이 지켜주지 못했다는 부채의식을 현세대에서 씻어내는 강렬한 집단 치유 의식이다. 또한 전야제에 열리는 낙화제와 유등제는 단종을 따르다 동강에 몸을 던진 궁녀와 종인들의 넋을 달래며 비애의 감정을 극대화한다.

특히 이 축제 기간에 연행되는 '대왕굿'은 영월 무속 신앙의 독특성을 잘 보여준다. 과거 김춘자 무녀에 이어 1990년대부터 강귀옥 무녀가 주도해 온 대왕굿은 일반적인 재수굿과 달리 무녀가 궁중 복식을 갖추고 삼현육각의 연주에 맞춰 단종의 혼령을 강림시킨다. 비극의 군왕이 무당의 몸을 빌려 신성한 힘을 지닌 수호신으로 발현되는 과정을 통해, 영월 주민들은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소멸하지 않고 부활하는 단종의 영적 권능을 체험하며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한다. 이렇듯 단종문화제는 역사적 상처를 덮어두지 않고 포용적 의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영월을 강인한 회복력을 지닌

도시로 조형해 냈다.

6. 쇠퇴한 광산촌에서 창조적 문명으로

비운의 군왕을 신성으로 부활시키며 척박한 환경을 버텨낸 영월의 강인한 생명력과 문화적 역량은, 20세기 후반 들이닥친 폐광이라는 치명적인 산업적 재난 앞에서도 위력을 발휘했다. 1970~80년대 영월은 풍부한 석탄과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인구 10만 명을 상회하며 한국 산업화를 견인하는 '에너지 심장'으로 군림했다. 그러나 1990년대 정부의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잇따라 광산이 폐쇄되면서, 영월은 극심한 인구 유출과 지역 경제의 붕괴라는 존망의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영월은 과거 권력의 희생양이었던 단종을 포용하여 정신적 원동력으로 삼았던 것처럼, 무너진 산업의 잔해를 '문화'라는 새로운 가치로 치환하는 혁신을 단행했다. 인구 감소로 폐교된 학교들과 버려진 광산 시설들을 활용해 1999년 책 박물관을 시작으로 별마로 천문대, 동강 사진 박물관 등을 연이어 개관했다. 단기간에 20개가 넘는 박물관을 조성한 영월은 2008년 국가로부터 '박물관 고을 특구'로 공식 지정받으며 폐광촌을 '지붕 없는 박물관 고을'로 완벽하게 변모시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특구 계획의 성과를 인정하여 2028년까지 연장을 공식 승인했다.

최근 영월의 문화적 진화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구축을 넘어 완벽한 주민 주도의 거버넌스로 이행하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역 생활 실험실'의 참여자가 전년 대비 5배 이상 급증하는 등 폭발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어냈다. 또한 영월군은 9개 읍·면 전역의 유휴 공간을 재생하여 무려 67개소의 '우리 동네 문화 충전소'를 구축했다. 이는 문화 인프라가 군청 소재지에만

편중되는 것을 막고, 산간벽지의 주민들까지 '15분 문화 생활권'을 누리게 하는
파격적인 공간 전략이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를 바탕으로 영월군은 전국 30개 법정 문화도시 및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대상으로 한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으며 '2025 올해의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광산 노동자들의 삶과 역사를
기록한 출판물 발간 등 '문화광산(光山)' 브랜딩 전략이 적중한 결과이며, 과거 석탄을
캐던 캄캄한 '광산(鑛山)'에서 찬란한 문화의 빛을 쬐는 '광산(光山)'으로의 완전한
체질 전환을 의미한다.

III. 결론

1. 영월, 아픔을 문명으로 제련해 낸 회복의 도시

영월의 역사는 지리적 고립과 권력의 폭력, 그리고 자본의 착취라는 지속적인 위기에
대한 지역 공동체의 위대한 투쟁기이자 문화적 극복기이다. 그 중심에는 단종이라는
비운의 군왕이 자리 잡고 있다. 영월 백성들은 억울하게 희생된 어린 왕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 깊숙이 끌어들이며 극한의 공감과 애도를 표했다. 전염병의
창궐과 촌락의 팽창이라는 조선 후기의 사회적 혼란 속에서, 영월은 단종을 태백산
산신령으로 격상시켜 흩어진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내는 정신적 지주로 삼았다.

침줄다리기로 화합을 다지고, 도깨비와 열두 간지 동물의 탈을 빌려 권력에
저항하며, 남의 장례식을 통해 왕의 넋을 위로한 영월 백성들의 눈물은 결코
패배주의적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절망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타인의
고통을 끌어안으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버려내는 '영월 정신'의 본질이었다.

이러한 깊은 정서적 연대와 끈질긴 회복력은 현대에 이르러 단종문화제라는 거대한

해원의 축제로 만개하였고, 석탄 산업의 붕괴라는 또 다른 절망 앞에서도 도시를
구원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했다. 광산이 문을 닫자 박물관을 열었고, 주민 스스로
67 개의 문화 충전소를 세워 마침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올해의 문화도시'로 비상한
영월의 현재는 과거 단종을 수호했던 그 결속력과 맞닿아 있다.

영월은 단지 역사의 비극이 박제된 유배지나 쇠락한 폐광촌이 아니다. 가장 깊은
상처를 가장 찬란한 문화와 문명으로 제련해 낸, 대한민국에서 가장 따뜻하고 강인한
회복의 도시다.

수천 자에 달하는 문헌 중심의 보고서를 완성하면서, 영월이라는 도시에 대한 나의
인식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처음에 나는 영월이 그저 카르스트 지형의 험준한 산수에
갇힌 슬픈 유배지이거나, 시대의 변화에 밀려 쇠락해 가는 폐광촌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나는 이 도시의 가장 순박하면서도 굳건한
정신적 내면에 닿을 수 있었다. 비록 전적으로 책상 위에서 수집한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완성된 보고서이지만, 역사와 문화가 가진 힘은 이미 종이를 뚫고 내
마음속에 전해졌다. 언젠가 다가올 미래의 어느 날, 내가 진정 강원도 영월 땅을 밟고,
기이한 카르스트 지형을 두 눈으로 보며, 동강의 맑은 바람을 느끼고 장릉 소나무 숲
사이로 부는 낮은 속삭임에 귀 기울이며, 활자 속에서 깨달은 이 모든 것들을 내
발걸음으로 직접 확인해 볼 날을 고대한다.

참고문헌

- 이기태, 2015. "18 세기 영월의 사회변동과 단종의 신격화 및 민속의 변화."
『한국민속학』 62, 207-246.
- 이영하, 2001. "영월 단종제." 『강원민속학』 15, 95-109.
- 최명환, 2004. "영월지역 무형문화 유산 실태 및 전승 방향." 『강원민속학』 18, 298-327.
- 한국뉴스특보, 2026. "600 년 전, 그곳에는 어린 왕이 있었다."
<https://www.ktsketch.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68> (접속 2026.6.4.).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6. "띠놀이."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7229> (접속 2026.6.4.).
- 지역 N 문화, 2026. "능마을 도깨비놀이."
<https://ncms.nculture.org/folkplay/story/7339> (접속 2026.6.4.).
- 지역 N 문화, 2026. "쌍다리 농기 놀이."
<https://ncms.nculture.org/folkplay/story/9595> (접속 2026.6.4.).
- 영월문화원, 2026. "말뚝이와 진사놀이."
http://ywcul.or.kr/bbs/board.php?bo_table=5_sub3&wr_id=110 (접속 2026.6.4.).
- KBS 뉴스, 2026. "축제로 승화된 추모제...영월 단종문화제 개막."
<https://www.youtube.com/watch?v=LK004FCwrRA> (접속 2026.6.4.).

강원도민일보, 2026. "영월장돌뱅이연합협동조합 덕포 5 일장에서 야시장 개장."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924109> (접속 2026.6.15.).

뉴스 1, 2026. "영월 박물관고을 특구 2028 년 연장."

<https://www.news1.kr/local/kangwon/5990831> (접속 2026.6.15.).

연합뉴스, 2026. "'올해의 문화도시'에 영월... 광산·국악 문화로 성과."

<https://www.yna.co.kr/view/AKR20260211024000005> (접속 2026.6.15.).

영월신문, 2026. "영월 67 개소 '우리동네 문화충전소' 구축."

<https://www.yeongwo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94> (접속
2026.6.15.).